

<2010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예수님께서서 지난날을 생각나게 해 주시며 주신 잠언.

1.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 홀로 사막길을 오래 가게 하시고 목이 타며 갇은 고통을 겪게 하신 후에 고향에 와서 썸도 파고 나무도 한없이 심게 하셨다.
2. 사막길을 가보지 않은 자는 썸을 파거나 나무를 심지 않는다.
3. 배고파 고생을 해 본 자가 음식이 귀한 것을 안다.
4. 병들어 아파 본 자가 건강이 귀한 것을 알고 생명같이 건강관리를 한다.
5. 실습이 교육이다.
6. 보여 주면서 마음에서 느끼게 해 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행하게 된다.